

초등학교 도덕과 반편견 교육과정 개발

김 국 현(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추 병 완(춘 천 교 육 대 학 교 교 수)

《 요 약 》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 다문화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논문은 반편견교육과 반편견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반편견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틀인 반편견 교육과정은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고 중지시키는 교육과정이다. 반편견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신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들을 도덕적으로 분석하도록 고무한다. 반편견 교육과정은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편견은 대체로 10~12세경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반편견 교육과정의 교육 이념, 교육적 인간상,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수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도덕교육, 반편견, 반편견교육, 반편견 교육과정, 초등학교

I . 서론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¹⁾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다문화사회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 1) 다문화사회 개념은 본질적으로 국가·민족의 경계를 전제한다. 지구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이미 다문화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 개념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 내에서 발생한 인구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이질적인 성격의 문화들이 혼재하게 되면서 문화의 혼합과 융합, 긴장과 갈등이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사회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문적이거나 사회현실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인구구성에서 기존의 단일민족적 구성(그것이 신화나 민족주의적 방어기제라 할지라도)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사회문제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사회는 2007년에 이미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종, 민족·국가 집단 구성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잘 확인된다. 2007년에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 수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발표’에 따르면 2007년 4월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수는 총 13,445명이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1,444명으로 총 재학생 수의 85.1%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 재학 외국인 근로자 자녀 수의 증가와 함께 주목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적의 배경이 되는 문화의 다양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초래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현실은 한국교육의 이념과 목표, 교육 과정, 교육 프로그램, 교사교육 등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다양성을 함축한다. 인간관계에서 다양성은 불가피하게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원에서는 심각한 사회균열을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실행되는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이 수반하는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들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처방으로서 적실성을 갖는다. 다인종, 다민족사회인 미국사회에서는 인종, 민족 편견이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초래하면서 편견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축적되고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됨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성과와 교육경험이 양적, 질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상태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현실에 적합한 반편견교육의 이념, 목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반편견 교수·학습 자료 역시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반편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요구를 배경으로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은 더 이상 인종, 민족 편견이 심각한 현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 같은 다민족사회의 고유한 교육과제는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장애, 영호남 지역감정과 같은 편견의 문제가 존재해왔으며, 현재 다문화사회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민족국가로 전환된 상태이며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그 경향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령아동 자녀 수 증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내국인 외국 유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문화 습합의 증대 등으로 학교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화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그간 학교의 가치교육을 담당해 온 중심 교과인 도덕과 교육은 이제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들을 포용하고 그것들에 동시에 헌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도울 새로운 책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반편견교육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반편견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이나 반편견교육 지원 여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임정현, 2005, pp. 27~44).²⁾ 교육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사회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 미래사회에서 더 항시적인 사회문제로 표면화될 다문화 문제에 대한 적실성과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다민족사회로 전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민족사회에 적합한 교육이 지배적인 상황은 다문화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의 씨앗이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 발아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가치교육을 담당해 온 중추 교과인 도덕과 교육은 편견과 차별의 도덕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와 관련하여 양과 질 측면에서 풍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현실이 초래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가 최근의 현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다문화사회에서 도덕과 교육이 다른 교과와 차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교육 영역이나 과제에 대한 도덕교육 연구공동체 내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도덕교육연구공동체는 도덕과 교육에서 실행하는 다문화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도덕과 교육이 기여할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개인에서 지구공동체에 이르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실천능력과 습관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반편견교육이다. 다문화사회에서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은 가치교육을 통해 드러난다. 도덕과 교육의 차별성은 다문화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규범적 접근으로 인해 확보된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육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이 수반하는 편견과 차별에 근거한 사회문제들을 도덕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편견과 차별에 대한 도덕적 저항능력,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를 위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적 실천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과 교육의 정체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접근법들 중 하나가 반편견교육이다. 반편견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을 도덕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서 다문화사회에서만 아니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이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교사들의 반편견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응답자의 81.5%)가 반편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활동에서는 반편견교육 상황이 생길 때마다 반편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교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정도는 매우 낮았다. 교사들이 반편견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반편견 교육자료 및 참고자료 부족, 교사 자신의 반편견교육에 대한 전문성(지식, 이해, 지도 방법) 부족을 들고 있다.

국내의 반편견교육 관련 선행 연구는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반편견교육의 교육 이념이나 철학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편견교육은 개인의 정체성, 인간관계, 사회통합 등 실존적 과제를 다루는 교육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특성이나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반편견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적실성과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미국사회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교육 이념과 철학을 답습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이념과 철학, 교육적 인간상 등을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반편견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양적 측면에서 첫째, 축적된 선행 연구의 양이 매우 적다. 둘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한 교육이나 편견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교육에 대한 것이며 여러 가지 편견의 영역들 중 한 영역에 대한 것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첫째, 논의 내용이 추상적이다. 둘째, 현장연구나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은 설정된 교육목표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다. 다시 말해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차원의 목표를 일괄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지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정의적, 행위적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나 발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낙관적 기대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차원은 얹혀 있기는 하지만 연쇄고리나 일방적인 흐름도 같은 선형적 관계나 인과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학교 급에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냈던 목표가 다른 학교 급에서 마찬가지로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의 반편견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반편견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안을 개발·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반편견 교육과정을 개발·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덕과 교육에서의 반편견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도덕과 반편견교육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론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으므로 초등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연계성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고등학교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의 반편견교육 선행 연구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다. II장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반편견교육의 필요성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III장에서는 반편견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반편견 교육과정을 반편견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나누어 논의한다. IV장에

서는 반편견 교육의 효과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환경을 반편견 교사교육 및 연수 강화 방안, 반편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지역화 방안, 그리고 반편견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Ⅱ. 다문화사회와 반편견교육

1. 편견과 반편견교육³⁾

편견은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경험 이전에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편견의 영역에는 능력, 나이,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성, 인종, 성, 성적 관심 등이 있다(Hall, 1999, p. 5). 편견은 도덕적 사고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인종, 종교, 문화의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또는 존중하지 않는지로 편견이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견은 도덕적 가치와 신념의 한 측면이다(Davidson & Davidson, 1994, XX). 따라서 도덕발달이론을 교과의 구조로 하는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반편견교육이 통합교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반편견(anti-prejudice)은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bias), 어떤 주의(isms)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것으로서 이질적인 것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편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반편견교육은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실천능력과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국내외 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고할 때 반편견교육의 계획과 실행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사

3) 본 논문에서는 반편견(anti-prejudice), 반편견교육(anti-prejudice education)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국내의 반편견교육 선행 연구들에서 쓰이고 있는 반편견교육(anti-bias)의 의미와는 초점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쓰이는 반편견교육이라는 용어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anti-bias education, anti-prejudice education 양자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anti-bias education은 고정관념을 변화시킴으로써 편견을 예방하는 교육,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편견에 대한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이전의 어린 아동들을 중점적인 교육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사용하고, anti-prejudice education은 편견의 제거가 불가능함을 전제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둔 교육, 편견과 차별에 관한 교육을 통해 편견과 차별의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적 분석능력과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 초등학교 이상을 중점적인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 학생들에게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집단의 특성, 즉 유사점과 차이, 역사와 경험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라면, 반편견교육은 개인으로서의 학생들 간의 상호수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도덕적 분석과 그것에 저항하는 실천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반편견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성, 인종, 민족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2~3세경 발달이 시작되며 5~6세경이면 분명해진다. 대부분 아동들의 경우 10~12세경에 편견이 구체화된다(Stephan, 1999, p. 39). 교육을 통해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편견교육이 불가능하다거나 무용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먼저, 설령 교육을 통해 편견을 제거하지 못한다 해도 반편견교육은 학생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해 주며, 때로는 학업성취 면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편견은 도덕 판단의 문제이며 도덕적 행위가 교육될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동의 편견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부모의 모델링, 사회적 영향, 인지적 미성숙 등이다. 그 중 인지적 미성숙은 나머지 두 가지의 근저이다. 아동 편견은 우선적으로 인지적 미성숙, 즉 타인 존중에 관해 추론하거나 가치화하는 능력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Davidson & Davidson, 1994, xx). 다시 말해, 아동의 미성숙한 도덕적 판단에서 발생한 편견은 도덕적 분석력과 판단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교육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특성, 아동이 가진 편견의 종류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교육과는 초점을 달리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 아동들의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유사성과 차이를 토론하는 능력,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로 사람, 사건, 대상을 비교하고 사고하는 능력, 부당한 발언에 반응하는 능력, 집단참여 능력,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능력,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 다른 문화, 인종, 신념 존중, 대안을 조사하는 능력, 집단에 속하는 능력,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같은 발달 기술들(Hall, 1999, p. 193)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고와 추론이 덜 조직적이고 덜 안정적이며, 대부분의 아동이 도덕성 발달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험 세계의 폭과 깊이를 고려할 때 편견의 종류는 성인에 비해 한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반편견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설정,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성인 대상의 반편견교육과는 초점을 달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사회의 반편견교육 현실

한국사회는 다민족국가로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인종편견과 민족편견,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인권유린, 차별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점차 파급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반편견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도덕교육이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이 되려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실제적인 관심을 가진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인 한국의 교육에서 반편견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규범적이고 규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입장은 도덕교육의 연구가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므로(Wilson, 2001, p. 11) 도덕교육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규정적인 것과 무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거나 전념하지 않는 관습 또는 원리로 도덕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도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반편견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정립, 학교를 진정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유의미한 자기주도적인 도덕학습이 가능하도록 도덕과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수단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중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신속히 공적교육을 통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현상이 심화되고 다민족국가로의 이행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서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도한 교육 내용과 계획이 교육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과정 일반,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반편견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교육과정의 내용 부분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양이 확대된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와 이와 관련하여 배포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관련자료(2007. 2. 23)를 보면 우리사회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세부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교육청의 장학자료 작성 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수아, 귀국자 자녀에 대한 사항만을 언급하였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하였다. 특히, 지역교육청 편성·운영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기회 마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우선 개발·정립하여야 한다.

Ⅲ. 도덕과 반편견 교육과정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반편견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제7차 교과 교육과정 문서는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의 구조 또는 학문의 구조에 근거하여 진술된 성격과 학생들의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된 목표는 교과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규정한다. 한편, 각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일반의 지향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은, 국가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일반의 지향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편견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교육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II장에서 반편견교육과 관련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인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 일반의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교육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에 다문화나 반편견교육 관련 사항이 미비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의 일부는 반편견교육의 목표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이념에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교육인적자원부, 2007, p. 29)’이라는 진술이 있다. 하지만 지구공동체의 편견, 불평등, 차별, 인권, 정의를 포괄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반편견능력을 포함하도록 진술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목표에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31)’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육이념이나 인간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구조적으로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낸다. 교육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추구하는 인간상 역시 세계시민 관련 내용이 없으며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교육인적자원부, 2007, p. 29)’은 다문화적 시각이나 태도의 형성과는 대립 가능성이 있고 자기문화중심주의, 문화적 동질주의나 배타주의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교급별 교육목표에서도 확인된다. 초등학교 교육목표 중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목표와 중학교 교육목표 중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30)’라는 목표는 앞으로 자민족중심주의, 단일민족주의의 위험성을 넘어서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반편견교육 내용의 교육과정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교육기회 마련 강조와 같은 긍정적 변화에 비해 평가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편견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고 반편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반편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핀란드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중학교 교육이념이다. 교육이념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반편견교육 사항이 포함되어 진술하고 있다.

초·중학교 교육의 이념은 인권, 평등, 민주주의, 선천적 다양성, 환경 보존, 문화의 다양성 인정 등이다. ……교육의 기초는 토착 문화, 노르딕, 유럽 문화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온 핀란드 문화이다. 특수한 국가적·지역적 특성, 국어, 종교, 원주민인 새미인과 소수 민족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 민족의 유입을 통한 핀란드 문화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 초·중학교 교육은 학생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핀란드 사회 및 세계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관용 정신을 기르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앞으로 반편견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경우처럼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시각을 강조하는 교육이념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도덕과 반편견 교육과정의 구성

가. 교육이념 및 추구하는 인간상

1) 교육이념

반편견교육의 이념은 인권, 평등, 민주주의, 선천적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인정 등이다. 반편견교육은 다른 문화적 배경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관용과 협력, 열린 공동체의식, 평등한 인간관계, 인간존중, 사회정의 등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반편견교육은 긍정적 자아정체성, 다양성과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 편견과 차별의 비도덕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신장시킨다.

2) 추구하는 인간상

도덕과 반편견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보편적 취약함을 바로 아는 인간이다. 둘째, 다른 사람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는 인간이다. 셋째,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를 위해 실천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교육적 인간상은 반편견교육의 목적, 즉 근본적으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적 기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정서적 저항,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하는 실천능력을 함양하고

자 하는 것에서 도출된다.

첫째, 인간의 보편적 취약함을 아는 인간이란 편견 극복의 인식적 기반 형성에 초점을 둔 인간상이다. 편견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성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인간 존재의 보편성이란 모든 인간이 각기 다른 취약함을 공통적으로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간들 간의 상호적 관계나 협력의 필요성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는 인간이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하라는 칸트(I. Kant)의 정언명법에서 목적은 자유로운 주체이며, 타자를 자유로운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한 욕구와 선택능력을 지닌 존재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한 개인이 자신과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는 타자(柄谷行人, 2000, p. 210)를 국가, 민족, 인종, 성, 능력, 계층 등의 특정 범주에 구속된 존재로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자가 어떤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판단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개별적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별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야 ‘나’는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욕구와 선택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할 수 있다.

반편견교육을 위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일부 내용(Harper Lee, 2003, p. 426)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인간상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 중 오빠 잼과 여동생 스카웃의 대화에서 스카웃의 발언은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을 탈범주화하고 개인화하는 관점이 내면화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인간이 있어. 우리나라 이웃사람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숲 속에 사는 커닝햄 집안 같은 사람들이 있고, 쓰레기장에 사는 이웰 집안 같은 사람들이 있고, 흑인들이 있어. (잼) 아냐 오빠 내 생각으로는 오직 한 종류의 인간만이 있을 뿐이야, 그냥 사람들 말이지. (스카웃)

셋째,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를 위해 실천하는 인간이란 자신, 가정, 학교, 한국사회, 지구 공동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비판의식, 저항감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일상생활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은 단지 인지적 차원이나 정서적 차원의 변화에만 머문다면

개인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반편견교육은 편견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를 공감하고 도와주는, 그럼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는 주체적인 실천능력을 지닌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

나. 성격과 목표

1) 성격

반편견교육은 자신, 가정, 학교, 사회, 한국, 지구공동체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과 관련된 도덕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기반으로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는 도덕적 실천능력을 길러 한국사회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규범과 기본적인 습관을 길러주고,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도덕적 실천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2) 목표

가) 반편견교육의 총괄목표

자신과 타인, 사회, 국가·민족, 지구공동체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삶에 필요한 규범과 기술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 편견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에 대한 공감능력,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능력을 함양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형성한다.

- (1) 자신이 가진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지닌다.
- (2)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3) 가정, 학교, 한국사회, 지구공동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도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나) 학교 급별 목표

- (1)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습관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2) 중학교 단계에서는 편견과 차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가정, 학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능력과 실천의지를 함양하여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
- (3)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학, 심리학 등의 학문을 기초로 학제적 접근을 통해 편견과 차별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한국사회와 지구공동체의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능력을 지닌다.

3) 내용

가) 내용의 구성원리

반편견교육의 내용 구성은 가치관계 확장, 학제적 접근, 구체에서 추상으로, 근접성의 네 가지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반편견교육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첫째,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원리인 도덕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계의 확장 원리를 따라 구성한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에서는 자신의 편견 인식, 개인의 긍정적 자아 정체성 발달을 강조한다.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 관용과 평등에 근거한 현실의 도덕적 분석을 강조한다.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국가, 민족, 지구공동체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 정의와 평화에 근거한 현실의 도덕적 분석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독특한 편견 문제를 발생시키는 남북한 주민 간의 편견, 단일민족주의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둘째, 편견과 차별에 학제적 접근을 시도한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도덕성 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 계층이나 민족 문제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역사 속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의 사례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인지적 발달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규범과 습관에서 이슈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구성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 이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예절과 습관 형성, 편견과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신과 가정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해, 학교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례 중심의 이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구공동체의 범위를 포괄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에 대한 이해, 편견과 차별의 해소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인간존재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윤리학적 이해, 지구공동체참여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넷째, 근접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인간 실존의 문제이므로 시공간적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사회문제로서 제기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그럼으로써 반편견교육에서 의도하는 도덕적으로 사회현실을 분석하는 능력과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실천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나) 교육과정 내용과 추가·보완할 내용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던 민족중심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반편견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지도 요소와 내용 요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변화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사회의 인구구성 추이가 다민족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는 먼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반편견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한다.

〈표 1〉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반편견교육 내용⁴⁾

학년	개정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내용 요소)	제7차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내용 요소)
3	• 소중한 나의 삶-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	—
5	• 대화와 갈등 해결 •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 타인의 권익 존중 • 올바른 국제 문화 교류

4) 반편견교육의 지도 요소(내용 요소)는 반편견교육의 성격과 목표에서 중시한 긍정적 자아정체성,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생활, 국가·민족, 지구공동체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에 대한 도덕적 공감,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능력 함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도 요소(내용 요소) 설정의 본질적 의도,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된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의 반편견교육 지도 요소로서 제시된 ‘나라의 상징과 나라 사랑’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7년 연구·개발한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안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 시 본 지도 요소의 내용에 다문화적 접근이 포함되도록 집필하여야 함을 기준으로 제안한 것(조난심 등, 2007, p. 175)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교과서 집필자들의 집필 내용에 따라 초점이나 강조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검정 도덕 교과서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표에서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의 지도 요소(내용 요소)는 반편견 주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한정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약화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다문화적 시각의 형성을 위한 내용 요소들이 강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긍심과 자기계발 • 공정한 행동 •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 • 편견극복과 관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 평화로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관용의 자세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삶의 자세(사랑과 관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생활태도—민주사회에서의 인간 존중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성 • 인간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 양성평등의 도덕적 의미 •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가치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판단의 과정 • 사회제도와 정의 	—

앞으로 도덕과 반편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지도 요소와 내용 요소들, 교과서 내용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새롭게 지도 요소나 내용 요소를 포함시키거나 보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환경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에 존재하는 편견의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를 도울 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들의 관점에 서보도록 하는 내용과 그들을 돕는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위해 습관화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핀란드의 초등학교 1~5학년의 윤리 교육과정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표 2〉 핀란드 초·중학교 윤리 교육과정의 반편견교육 내용⁵⁾

학년	내용(5학년 말의 학업 성취도 기준)	
1~5	인간관계와 도덕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만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 정의, 일상에서 정의의 실현, 세계의 부와 빈곤 • 관용과 차별
	자아인식과 문화적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여러 가지 방식, 다문화주의, 관용 • 핀란드인의 문화와 핀란드의 문화적 소수자 (핀란드인 됨이 세계 다양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공동체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사는 삶의 기초, 규칙, 동의, 약속, 신뢰, 정직과 공정성, 중용 •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윤리적 문제와 해결
6~9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공동체, 핀란드 문화, 관용
	윤리와 행복한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도덕적 성장 • 인권에 대한 윤리 • 윤리적 문제로서의 다문화주의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실 학습에서 가장 주요한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1〉을 보면, 개정 교육과정의 3학년에 일부 관련되는 지도 요소가 있지만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 알기, 나의 자랑스러운 점과 다른 사람의 자랑스러운 점 알기, 나와 다른 사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기, 다른 사람의 독특한 점을 찾아내는 습관’ 같은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편견교육에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활발하게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편견교육의 실천지향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기술과 현장 활동경험(field experiences)이 교과서 내용 속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 교육 평가를 고려하여 내용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제7차 교육

5) 이 표의 내용은 핀란드의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들 중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반편견교육과 관련된 내용만을 선정하고 무관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제시한 핀란드 교육과정의 내용 전체는 다음을 참고한다(서울시교육청, 2007, pp. 73~77).

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을 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정합성이 낮은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편견교육의 목적과 의도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내용이 집필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론법, 역할놀이법, 논술법, 자서전 쓰기, 범주화 과정 변경법 등에서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자극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 교수·학습 방법

학교에서 편견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접촉을 증가시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다른 나머지 교과들과 통합된 프로그램, 다른 사람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과 특성을 개별화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교실에서 그리고 과외활동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의 공동작업을 선택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 집단 간 협동학습을 제공하는 것, 수업과 학부모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도덕과 반편견교육은 이질적 배경의 사람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감정이나 심리적 거리, 그리고 차별 행위라는 편견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반편견교육은 인지적 차원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부도덕성을 공감하고 평등과 관용이 실현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반편견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로 구분된다. 물론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초점이 다르지만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예를 들면, 인지적 방법 중의 하나인 상위범주의 활성화는 인지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다. 때로는 세 가지 방법이 독립적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비효과적이거나 역효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편견 수업을 계획할 때에는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 수준에 부합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학년별로 고려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목표와 내용에 알맞은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또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 수준은 대체로 상이하다. 따라서 반편견교육의 공통목표를 추구하되 발달 수준에 따라 활용되는 방법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초등학생아동은 대체로 모순되는 정보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성, 정서적 측면의 비정교화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의 경우 다양성을 참아내는 훈련과 같은 관용의 습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절 습관의 형성 등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시각과 태도의 형성에 초점을 둔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논쟁과 이슈를 만들어내는 편견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논술하는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토론의 주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사회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편견의 유형, 반편견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사회, 반편견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 집단의 특성,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수업 공간, 시설이나 기자재 등의 환경, 반편견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나 전문성, 편견의 원인에 따른 적합한 처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열성적인 교사라면 수업 전에 자신의 학급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단계와 편견의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발달상황에 적합한 방법들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낮은 도덕성 발달단계와 편견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수준을 높이고, 도덕성 발달과 양심을 강화하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다.

반편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구분해본다면, 인지적 접근방법은 부정적 고정관념의 변화를 위한 것으로서 재범주화, 탈범주화, 역고정관념 활성화, 고정관념 불일치 모델 활용 등의 범주화 과정 변경법을 포함한다. 정의적 접근방법은 영상과 문학 활용법 등을 포함한다. 행동적 접근방법은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각각이 하나의 접근방법에만 속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목적과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1) 범주화 과정 변경법

특정 문화 배경의 집단들, 역사적 사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오개념(misconception)을 교정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은 타당한 일반화와 고정관념을 구별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Moore, 2006, pp. 35~36).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주화는 부정적인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범주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범주화는 개인의 정체성 발달, 사회화, 모델링, 인지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주화가 자기중심성과 배타성을 떨 때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범주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범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정적 측면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범주화의 본질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범주화 과정 변경법이며, 재범주화, 탈범주화, 상위범주의 활성화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범주화는 새로운 하위 유형의 범주를 통해 외집단 구성원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기존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게 한 범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탈범주화는 외집단 구성원을 범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상위범주(superordinate categories)의 활성화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바라보지 않도록 범주 내에 내집단과 외집단 양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범주를 활용하도

록 고무하는 것이다.

반편견 수업에서는 우리 학급, 우리 학교 구성원 같은 상위범주를 활성화하는 것, 야구 동아리, 댄스 동아리 등의 새로운 하위범주로 기존의 범주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 기존의 범주와 부정적 특성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된 부정적 특성을 긍정적인 특성으로 변경하도록 고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 동료들이 상호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서로를 개인으로 깊이 있게 알게 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학습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고정관념 불일치 모델 활용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지각한 사람에 대한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개념은 올바른 정보나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지만 편견은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에 저항하는 속성을 가진다. 오개념과 달리 편견은 감정적 기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지적 측면에서 가설확인적 책략, 감정적 측면에서 편견 대상 집단에 대해 가지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은 편견의 감소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그 사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나 집단을 좋아하도록 고무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반편견 수업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불일치하는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인도를 떠올릴 때 연상되는 가난, 카스트 제도, 힌두교 등은 인도 사람 전체가 그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인도인 다문화가정 자녀가 속한 학급에 인도 기업가나 IT 전문가를 역할모델로 초청하여 강의, 토론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편견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개인이 가진 암묵적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토론법

토론법은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력,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한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사는 토론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의 사회문제를 도덕적으로 분석하고,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다. 반편견 수업에서 토론법은 편견과 차별 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장애인 고용 할당 문제) 제시, 잠정적 입장 진술, 추론 검증, 개인 입장의 반성이라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토론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편견과 차별 문제에 얽혀 있는 도덕적 복잡성을 알게 되고, 같은 문제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인정하는 것

과 다른 견해를 참아내는 방법을 익히고, 상이한 관점들의 상보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해결기술 등을 익히게 된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협력하는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반편견 토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바꾸어 토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논쟁해 보는 것이다. 서로의 발표 내용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공격하는 행동을 금하는 규칙을 공유한 채 편견과 차별의 사례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 서서 토론해 보는 학습은 자신의 견해가 가진 단점,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김국현, 2003, p. 170).

4) 논술법

논술은 학생들이 도덕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구안해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편견교육에서 논술법은 도덕적 가치 개념과 원리를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능력, 도덕적 탐구능력,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편견과 차별의 해소와 관련되는 주요 덕목인 인간존중, 관용,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편견과 차별의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에 적용하는 것, 편견과 차별 문제의 이해, 그 원인 진단, 정의로운 질서를 갖춘 사회의 재구성, 이에 따른 처방 제시라는 탐구의 절차를 습관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논술법을 반편견 수업에 적용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담은 글(신문 기사, 교사의 글, 학생의 일기, 문학작품) 제시하기, 편견과 차별을 주제로 자유롭게 글쓰기(free writing), 자유롭게 쓴 글을 소집단 동료끼리 검토하고 협력적으로 재구성하여 글쓰기(collaborative writing), 학생 자신의 이야기나 대안을 담은 글로 재구성하기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급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 협동학습, 자신의 이야기하기가 가능할 수 있다.

5) 자서전 쓰기

학생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상상력을 확대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자서전 쓰기이다. 자서전 쓰기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경험과 관련된 짧은 글을 써보게 하는 것이다(Craig, 1994, p. 129). 자서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상상력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도덕 원리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다. 반면 수업에서 자서전 쓰기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편견과 차별을 가해자와 희생자의 관점에서 써보는 과제의 형태로서 제시될 수 있다. 편견과 차별의 희생자 집단 학생들에게 이 과제는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가해자임을 알게 하고, 편견과 차별의 가해자였던 학

생들에게는 자신의 편견과 차별이 다른 사람에게 준 영향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자서전 쓰기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도덕적 분석능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

6) 영화 · 문학 활용

영화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전환점을 제공하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Berger & Pratt, 1998, p. 1818). 영화는 학생들이 도덕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등장인물들의 행동과정을 평가하게 하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에 노출시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평가를 자극한다. 그리고 앞으로 삶의 방식을 숙고하도록 해준다. 특히, 영화는 도덕문제 토론과 가치명료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영화를 활용한 반편견 수업이 가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는 영화를 활용한 반편견 수업을 계획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한다(Kirschenbaum, 1995, p. 71).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여야 한다. 또 영화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특수한 질문이나 사물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가치교육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토론과 활동들을 병행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은 윤리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좋은 문학작품은 도덕적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 획득, 도덕적 감수성 발달, 도덕적 모델 제시, 타자의 윤리와 도덕 개념에 대한 설명 등의 기능을 통해 도덕교육의 효과를 강화한다(Kirschenbaum, 1995, pp. 66~67). 문학을 활용한 반편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윤리적 갈등이 인간 삶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자아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윤리적 딜레마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고 사회적, 도덕적 통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김국현, 2006, p. 213).

7) 역할놀이/게임

역할놀이는 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 태도, 욕구, 가치, 인식에 대한 통찰, 긍정적 자아정체성,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 집단 응집력, 도덕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체득, 문제해결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기능, 태도, 능력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조난심 등, 2007, p. 224). 역할놀이를 수업에 적용할 때 역할놀이는 준비, 참가자 선정, 무대 설치, 참여적 관찰자로서 청중의 준비, 시연, 토론 및 평가, 재연, 경험 공유와 일반화의 절차를 거친다. 반편견 수업에서 역할놀이는 편견과 차별의 사례를 희생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의 역사적인 고통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역할놀이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 외집단에 대한 공감, 집단 간의 우호 증진 같은 편견과 차별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8) 사용자 제작 동영상(UCC) / 촌극(brief drama)

수업에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수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반편견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려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나 이슈, 친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매체나 기기 등을 통합하여야 한다. UCC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의 매개이며 사회적 풍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반편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의 소재로 제작한 동영상에는 점자 블록의 훼손으로 인해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의 모습, 특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놀리고 따라하는 친구들의 모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학생들의 동영상 제작은 학생 주도적인 편견과 차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분석 능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동료 학생들의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은 반편견 토론 수업에서는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에 관한 토론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9) 지역사회 봉사활동

반편견교육은 학생들의 반편견 실천능력 함양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활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계획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수업 분위기를 변화시켜 준다(Davidson & Davidson, 1994, XVI). 반편견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내의 새터민 대안학교나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위한 학급 장터열기활동,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학업 성취수준이 낮은 또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같은 과제들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0) 학교 및 학급 반편견 선언서 제정

반편견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편견적 태도와 차별 행위에 대한 교사의 즉각적 개입과 같은 타율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도덕 학습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은 스스로 반편견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활동이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활동은 학급의 대표를 중심으로 학급 동료들 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교사를 포함한 학급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반편견 선언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규칙들, 보상과 처벌의 방안을 문서로서 작성하는 공동체활동이다.

라. 평가

반편견교육의 평가는 실천지향성을 중시하는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편견교육 평가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반편견적 태도 발달의 진전도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학생의 반편견적 태도 발달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관찰기록 자료와 학생들이 수업 과제로서 제출한 자료들이 수집·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교사는 학생 개인이나 학급 집단이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루어 가고 있는 도덕적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편견 수업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Swader & Monica, 1993, pp. 15~17).

평가를 위해 교사가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자료들은 학생의 토론 참여 태도, 동료 도움 행동 빈도, 협력적 글쓰기활동 참여 태도, 사회참여활동 태도 등에 대한 관찰 기록, 편견과 차별 문제에 관한 학생이 작성한 글, 저널, 포트폴리오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경험, 정보,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편견과 차별 문제에 대한 학생의 자각 수준, 반편견활동들에 대한 관심도, 자발적 토론과 활동의 발생 빈도, 무조건적 상호수용도, 그리고 교사가 처음으로 반편견교육 자료들을 제시하고 관련 활동과 토론을 고무했을 때 자신이 느꼈던 염려 등을 파악할 수 있다.

IV. 반편견교육의 지원 환경

1. 반편견 교사교육 및 연수 강화

위에서 논의한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초·중등 예비/현직 교사들을 위한 반편견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연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반편견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반편견교육 활동의 실시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교사가 반편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와 진정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편견 지식, 기술, 태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반편견교육에서 우선적인 것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이다. 교육과정에 반편견적 지식, 기술,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과 반편견 활동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후 현직교사로서 문화적으로 포괄적인 반편견 교육과정을 가르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교사를 위해서는 교과별로 반편견교육 연수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연수 내용에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연구성과와 교육경험 강의, 교사 스스로 자신의 편견을 조사해 볼 수 있게 하는 자서전 쓰기, 반편견 교수·학습 방법, 학생들의 반편견 태도 발달 상황을 기록하는 관찰일지(daily journal) 쓰기와 같은 평가자료 수집·분석 방법, 반편견 교수·학습 자료 교육, 반편견 현장 활동(field experiences)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편견 교사 연수에서 자서전 쓰기는 교사 개인에 의해 반편견 교육과정이 가르쳐지는 방식에 대해 교사의 성격, 자질, 성,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할 계기를 제공한다. 교사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수업에 적용해 온 반편견 교육과정이 접근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반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반편견 수업에 함축되어 있는 편견적 요소를 파악하게 되고, 학생들의 유의미한 반편견 학습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업 내용 및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정립할 수 있다.

2. 반편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지역화

지역별로 반편견교육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요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반편견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물론 반편견을 위한 기본적인 학문적 토대와 기본적인 태도, 습관과 관련된 내용은 통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지역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다시 말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갈등이나 긴장, 불편을 주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지역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반편견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는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 역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용 개발 및 집필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종이나 민족 편견이 교육적 요구로서 제기되는 지역의 경우와 영호남 지역감정 같은 지역 편견이 사회문제로서 제기되어 교육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교과서의 내용 개발과 집필은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초·중·고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별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07, p. 7)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을 지역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초·중·고 재학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적은 16개 시·도에서 몽골, 일본,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 구성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몽골, 일본, 중국 국적의 편중도가 유사하다. 인천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국적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은 반편견교

육의 이슈와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함축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효과적 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정관념 불일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역사회에서 초청할 인적자원이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없으며, 영상과 문학을 활용한 수업 역시 반편견 교수·학습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반편견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반편견교육의 실천지향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축제, 봉사활동을 반편견교육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외국인근로자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여 학교축제를 문화축제로 기획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초등학생의 편견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모델링이다. 학생들이 가진 지식은 대체로 언론매체나 가까운 가족들의 신념과 가치들을 전수받은 것들이다. 학생의 특정 사회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수준은 자발적인 많은 토론과 활동으로 연결된다 (Swadener & Monica, 1993, p. 25).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교육의 우호적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안이 학부모 대상의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이다.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견의 집단에 속한 학부모를 강사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 이야기와 사회에서의 차별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교육은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화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딱딱하고 썰렁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축제라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시설과 기기 등에 대한 커다란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반편견 영화 상영,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3~4회의 편견해소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반편견 영화로서는 미국사회의 인종편견문제를 다루어서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을 유발하는 〈정글 피버(Jungle Fever)〉,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다루고 있어서 인간 존중과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하게 자극할 수 있는 영화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을 선정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문화교육이며,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반편견교육이다. 반편견교육은 편견과 차별의 사회문제를 도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국내 반편견교육 연구성과가 양적, 질적으로 빈곤한 실정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반편견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반편견 교육과정을 교육이념과 교육적 인간상, 성격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고 반편견 수업에서 적용할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반편견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과적인 반편견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과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급별로 적용될 수 있는 반편견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관리,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동일한 반편견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시·도별 중복 예산 투입과 연구 산출물의 질 저하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에게 유용한 반편견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KICE 교수학습센터와 같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문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연구기관이 개발한 교과 통합적인 교육과정과 반편견교육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수·학습 자료, 외국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우리 역사와 문화적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자료 등을 시·도교육청에 제공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서 반편견교육을 위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예비교사들의 반편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현직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반편견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사들의 반편견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다문화사회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및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교과들 간의 통합적 접근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원양성대학들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반편견교육 관련 강좌나 반편견활동을 핵심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 도덕, 사회**.
- 교육인적자원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관련자료**.
- 김국현 (2002). 반편견 통일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51, 137-167.
- 김국현 (2003).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통일정책연구**, 12(2), 141-183.
- 김국현 (2004).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편견교육**. 서울: 인간사랑.
- 김국현 (2006).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도덕교육. **국민윤리연구**, 61, 193-225.
- 김옥동 역 (2003). **앵무새 죽이기**. 서울: 문예.
- 남궁달화 역 (2002). **도덕교육평가**. 청원: 한국교원대학교출판부. Wilson, J. (*The*) *assessment of morality*.
- 박철희 (2007). 다문화교육의 관점에 기초한 사회·도덕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7(1), 109-129.
- 서울시교육청 (2007). **초·중학교/고등학교 국가수준 핵심 교육과정: 교육선진국 핀란드를 가다**.
- 송태욱 역 (2001). **윤리21**. 서울: 사회평론. 柄谷行人 (2000). **倫理 21**. 平凡社.
- 임정현 (2005). **반편견(anti-bias) 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정도**.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조난심 등 (2007). **초·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 등 (2007). **도덕과 교과서 집필 기준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boud, F. (1988). *Children and Prejudice*. New York: Basil Blackwell Ltd.
- Bergen, T. J. (2000). The development of Prejudice in Children. *Education*, 122(1), 154-162.
- Berger, P., & Pratt, C. B. (1988). Teaching Business-Communication Ethics with Controversial Film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 Byrnes, D. A., & Kiger, G. (Ed.) (1992). Common Bonds: Anti-Bias Teaching in a Diverse Socie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48152)
- Davidson, F. H., & Davidson, M. M. (1994). *Changing Childhood Prejudice: The Caring Work of the Schools*. Westport, Connecticut: Bergin & Garvey.

- Gimmestad, B. J., & Chiara, E. D. (1982). Dramatic Plays: A Vehicle for Prejudice Redu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6(1), 45-49.
- Hall, N. S. (1999). *Creative Resources for the Anti-Bias Classroom*. Albany: ITP.
- Kirschenbaum, H. (1995).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Boston: Allyn and Bacon.
- Mckown, C. (2005). Applying Ecological theory to Advance the Science and Practice of School-Based Prejudice Reduction Interven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40(3), 177-189.
- Manning, M. L., & Baruth, L. G. (2004). *Multicultural Educ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Moore, J. R. (2006). Shattering Stereotypes: A Lesson Plan for Improving Student Attitudes and Behavior and Behavior toward Minority Groups. *The Social Studies*, 35-39.
- Oskamp, S. (Ed.) (2000).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New Jersey.
- Ruiz, L. I. (1995). An Anti-Bias Children's Literature-Based Reading Program.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88938)
- Salzman M., & D'Andrea, M. (2001). Assessing the Impact of Prejudice Prevention Projec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 341-346.
- Stephan, W. (1999). *Reducing Prejudice and Stereotyping in School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trech, L. L. (1994). The Development of Racial Stereotypes in Children and Education' Respons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78077)
- Swadener, B. B., & Miller-Marsh, M. (1993). Antibias Early Education: Toward a Stronger Teacher Voice in Research.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62290)
- Titus, D. (1998). Teaching Tolerance and Appreciation for Diversity: Applying the Research on Prejudice Reduc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61623)
- Wotorson, M. (2001). Partners against Hate Program Activity Guide: Helping Children Resist Bias and Hat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64966)

• 논문 접수 : 2008년 3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8년 3월 31일 / 게재 승인 : 2008년 4월 15일

ABSTRACT

Anti-prejudice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Kuk-Hyun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Beong-Wan Chu

(Professor, Chun 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paper discusses anti-prejudice education and anti-prejudice curriculum. Anti-prejudice education help all students rejec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directed toward outgroup. Anti-prejudice curriculum is a type of curriculum aimed specifically at preventing and stop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all kind. It encourages students to analyze morally their own prejudice and social prejudices. And it is implemented systematically and in integrated way at elementary school education. Because children's prejudice such as gender, racial and ethnic are more or less crystallized by age 10-12. In this paper, educational thought, educational thought, the ideal profile of educated person, cont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designed to help students overcome prejudice and stereotyping such as to use superordinate categories, dilemma discussion, writing essays supporting minority groups, arranging visits to the class by representatives of various groups, role playing being a member of another group, UCC, Brief Dramas using racial and ethnic themes field experiences and evaluation of anti-prejudice curriculum are suggested.

Key Words : moral education, anti-prejudice, anti-prejudice education, anti-prejudice curriculum, elementary school